

文대통령, 지방분권 핵심 개헌 방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데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지방분권 구상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 등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각 주제마다 세부적 방안도 언급해 새 정부 개헌 밀그림이 담겼다고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8월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개헌 구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반년 여 앞으

국회 개헌 논의 지연시 정부 주도로 속도 가능성커

권력구조개편 합의 안될시 지방분권 개헌 먼저 추진

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할지, 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접목할지 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진척이 없으면 정부 주도로 지방분권 내용 만이라도 담긴 개헌안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

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합의되는 과제만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개헌 논의에서 중앙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에서 중앙권력구조 개헌안을 놓고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분권 개헌이 먼저 나눠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경우 국회 개헌특위가 아니라도 문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신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 초첨 모임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로 표기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도 제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명칭으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로드맵’을 간담회 주 안건으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다.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시·도지사 속원인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들에게 ‘특히 지방분권을 협약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자치·분권이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문 대통령-정 부회장-윤 시장 무슨 대화 나눴나

광주형 일자리 맞물려 친환경차 문제 공감대 시각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윤장현 광주시장이 25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1차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나란히 경기를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 부회장·윤 시장은 25일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

즈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1차전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간헐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2017 투표참여 리그 리는 야구 이벤트’를 통해 약속한 정규리그 1위 팀 ‘연고지 시구’ 공약을 지키기 위해 깜짝 방문했고, 정 부회장도 ‘기아차 사방에 방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이뤄진 또 다른 깜짝 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지난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보기 드문 조우여전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전국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맞물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동차 전용공장 신설 등 투자 여부가 재계와 지역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문제가 말머리에 올랐을 것이라는 추론이 적잖다.

세계 자동차시장이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현

대기이자도 하이브리드에 이어 수소차, 전기차 분야에 주목하고 있고 광주시는 친환경차 사업장을 유치해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포부에서 전기차 또는 친환경차가 이들의 대학에 공집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체에서는 그동안 고임금 완성차 업계는 프리미엄 차량을, 채산성이 낮은 1500cc 이하 소형차나 경차, 부품조립 공장은 동종 일자리보다 임금이 50% 수준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근로자를 수혈하는 투 트랙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생산라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만큼은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광주에 2500억원대 투자를 약속한 중국 조이통치동차의 한국 법인 대표도 공교롭게도 경기가 열리는 시각, 광주로 내려와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직 (윤 시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고, 기아차 광주공장 측도 전날 야구장 회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동구문화센터, 달빛길을 커뮤니티공간 새단장

광주 동구가 동구문화센터에 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달빛길을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등 새 단장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달빛길은 버스킹 및 다양한 문화공연이 가능한 야외 데크무대와 각종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1층 갤러리·카페로 꾸며졌다.

동구는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7일 ‘동구문화센터 한마당·큰잔치’를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이외데크무대에서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낙타, 하모니카, 통기타 등 8개 팀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며,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커뮤니티공간에서 수채화, 마법POP, 칼리그리피, 플라워디자인 등 회원들이 직접 만든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서구,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

광주 서구가 타월한 행정역량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구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지역경제 △정주환경 △문화복지건강 △인적역량 △건강지정역량 △사회적자본역량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서구는 보건복지 관련 지표에서 타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 점수에서 전국 평균(706.78점)보다 훨씬 높은 820.15점을 얻어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북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광주 북구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와 투명한 관리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주체 역량강화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관내 21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2017 공동주택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등 구성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로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일상호씨가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난 8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해설 및 주요 질의·회신사항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이해를 돋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리주체들이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수선계획서 조정과 장기수신총당금 사용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북구보건소 전선아 영양사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주제로 한 소양교육도 진행한다.

광산구 제1호 소통방 어룡동주민센터서 개소

광주 광산구 어룡동주민센터에 ‘웃음소리 소통방’이 25일 문 열었다. 주민 7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개소식을 갖고 소통방 운영을 반겼다.

어룡동 웃음소리 소통방은 광산구 어룡동주민센터에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 공모로 마련한 것. 광산구에서는 첫 번째로 운영한다.

증간 소음, 주차 시비,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주민회복지원회를 맡은 13명의 소통방지기와 전문가의 조력으로 이웃끼리 해결하는 곳이다. 변호사, 구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분쟁해결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한다.

중재가 없는 평상시에는 이를처럼 소통방을 주민들의 교류 공간으로 사용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구례·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간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기장법원 순천지법
2017년 단 10078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이 쟘례(556-2581110)
최후주소 : 전남 순천시 연동남길 24, 102동
906호(조례동, 연동대주파크빌 1차아파트)
등록기준지 : 전남 순천시 대일동 110번지

위 망 이점례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23조재원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 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출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탁에서 제외함).

2017년 10월 27일

공고인 : 조예순, 조용선, 조용무, 조아례,
조용연, 조용준, 조아라.
주 소 : 전남 순천시 연동남길 24, 102동 906호
(조례동, 연동대주파크빌 1차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0월 20일
공고기간 : 2017. 10. 27~2017. 12. 28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 | |
|----------|--------|
| ■ 건설면허신청 | ■ 기장대리 |
| ■ 일정상속증여 | ■ 법인설립 |
| ■ 기업 진단 | ■ 외부감사 |

광주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
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 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 해체공사

▶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